

- 1.제목: 나의 사춘기에게
- 2.형식 및 장르: 드라마
3. 예상 러닝 타임: 4분
4. 연출: 유명선
5. 팀원 및 각자 역할: 박정훈 조연출 음향 김효린 제작 미술 이용준 촬영 조명 민현태 제작보조 스크립터 정시찬 편집 메이킹 촬영 조명보조
6. 선택한 음악명과 가수명 나의사춘기에게 : / 불빨간사춘기(BOL4)

<스토리 개요>

7. 핵심 소재: 꿈 공부 부모님 디자인
8. 프레이스: 자신이 하고 싶은 꿈과 부모님이 하라는 꿈의 충돌을 겪고 있는데 내가 바라는 꿈은 불안정하다.
9. 콘트롤링: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을 해야한다.
10. 로그라인: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딸 에겐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복돋아주는 이야기.

11. 연출의도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을 본 적있다. 나중에서야 꿈을 이루기도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모습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나중에서라도 사람은 하고 싶은 걸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살짝의 여운을 주려고 주인공 혜진이 디자인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그녀가 했던 게 흑역사가 아니고 현재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흥미로운 것’ 이라는 부분을 보여주었다.

주인공은 그 시대 상에서 떠오르지도 않고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직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 시대에 맞춰 공무원을 택한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처럼 딸에게 후회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말한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이 택한 길에 후회를 하기도 한다. 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은 선택지 못한 걸 딸은 자유롭게 하는 내용을 떠올렸다. 이런 단순한 주제를 가지고 나의 사춘기 라는 노래에 맞게 청소년기의 고민과 연관지어 시나리오를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12. 등장인물

김혜진(45대)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무원, 자신의 딸에게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하는 자유로운 엄마이다.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고 옛날에 놓쳤던 ‘디자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

김혜진(18)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여러 공모전에 출품해보지만 재능은 없는 편, 디자이너가 되고 싶지만 부모님의 강요에 싫증이 나있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의 안정성과 디자인의 불안정함에서 갈등하다 마지막엔 디자인 책을 버리며 공무원을 택한다.

김혜진의 딸(18)

꿈이 없는 아이

그 외 엑스트라: 친구1, 친구2, 혜진 부모님

시놉시스

첫 시작은 낮, 현재의 김혜진(45)가 직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두드리다가 딸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받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딸이 학교에서 나눠준 종이가 있는데 하고 싶은게 없다며 친구따라 간호사나 할까라고 묻는다. 그 말에 혜진은 고민하다가 그게 너가 하고 싶은 꿈일까?라고 되물으며 너가 하고 싶다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허락하는 대답을 한다. 그러자 딸은 '엄마는 어릴 적에 여기 뭐라고 적었어?' 라고 묻는다. 혜진은 그 질문에 '엄마는 너 나이 때 그 꿈을 적는 칸이 제일 어려웠어. 음..' 이라고 말하며 과거를 회상한다.

과거. 독서실 저녁, 김혜진(18)이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공책 속에 a브랜드 공모전 로고를 디자인한다. 그리고 키보드를 두들기며 로고를 만든다.

시간이 지나고 혜진은 힘들었다는 듯 기지개를 편다 그때 엄마에게서 문자가 온다. '딸~시험이 아무리 끝났어도 공무원 문제집 매일 풀어야 해 알지?' 화면을 보던 혜진은 인상을 찌푸리며 . '알아서 할게요.'라고 답하고 폰 화면을 끈다. 기분이 상했는지 노트북을 탁 덮으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누르다, 가방에서 공무원 문제집과 같이 쓰는 공책을 꺼낸다. 그러다 종이를 떨어뜨리고 혜진이 주우며 종이를 쳐다본다. 거기엔 학교에서 나눠준 나 스스로 적는 '다가오는 고3, 나의 꿈은 디자이너 입니다.' 종이 보인다. 그 종이 아래에 '부모님이 원하는 나의 꿈은 공무원' 이라고 적혀있는게 보인다. 한참 보다가 가방에 넣고 하기 싫다는 듯 공무원 문제집을 책상 위에 올려둔 채 팔을 머리에 대고 엎드린다.

다음날 아침. 혜진이 창틀에 앉아 휴대폰을 하는데 친구1이 다가와 상장을 건넨다. 교내 디자인공모전 동상을 탔다는 소식이다. 친구1 엄지 척을 해주자 혜진은 싱긋 웃으며 고맙다고 한다 반장이 지나가자 상장을 보며 아쉽다는 듯 가만히 본다. 그때 문자가 온다.

'b브랜드 로고 공모전 예선 결과' 라는데 '지원자 김혜진님,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안타깝게 공모전에 떨어지셨습니다.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온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문자가 또 왔는데 'c브랜드 공모전 최종 결과' 라면서 문자가 왔는데 김혜진이 떨어졌다는 내용이다. 휴대폰을 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창 밖을 쳐다본다.

낮 학교 도서관. 디자인계열 관련 서적들이 꽂힌 책꽂이를 지나치는데 흥미로운 표지에 책 한 권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서서 읽는다. 재밌었는지 몇 권을 더 꺼내 책상에 앉아 읽는다 그러다 친구1이 다가와 공무원 관련 문제집을 잠깐 내려놓고 김혜진(18)에게 종이를 내민다. '2012년 인기많은 베스트 1위 직업 공무원' 이라는 제목이 적힌 스크랩한 기사를 보여준다. 기사 아래 쪽지에는 '너도 나처럼 공무원 준비한다는 말이 있던데 정보 공유함.'

라고 적혀있다. 친구1이 손가락으로 기사를 가리키더니 힘내라고 손을 불끈 친다. 혜진은 그 모습에 살짝 미소를 띤다. 친구1이 손인사를 하며 자리를 뜨고 혜진은 기사를 한참 쳐다본다

그날 밤 독서실에 앉아, 공모전 내역을 적으며 꼬적이던 중 디자이너에 대한 불안감에 생각에 잠긴다 핸드폰을 하다가, 검색을 하며 눈에 띄는 블로그 게시물 글을 읽어본다 '현대에 불안정한 직업은 갖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이 보인다. 글을 읽으며 메모지에 메모하는데 '불안정한 직업 1위 디자이너..2위ooo' 이라고 차츰 적는데 메모지를 다 적고 써놓은 글을 보는 혜진의 표정은 불편하고 불안하다.

공무원에 대해 검색을 해 찾아보는데 '요즘 시대가 공무원을 추천하는 이유' 등 여러 글과 영상이 뜨고 혜진은 몇 개 눌러 영상을 본다. 혜진은 영상을 보다 꼬고 턱을 권 채 고민한다. 다음날 카페 책상에 앉아 디자인 책을 읽다가 책을 덮고 책 표지만 쳐다본다. 그 순간 특이 온다. 유명한 공무원 학원 강사가 와서 특강을 해주신대 딸~ 이라며 센터 프로그램 진행 표를 보내준다. 그런데 1회차가 대학입시 강사, 2회차가 디자이너 ooo이라고 적혀 있다 고민하다가 메모지에 1회차 강의 시작 날짜를 적는다.

메모지를 한참 적는데 엄마에게서 문자가 더 온다. '딸 엄마 아빠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가난한 디자이너 보다 돈 많이 벌고 편한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문자가 온다 그 문자에 김혜진(18)는 '네 생각해볼게요.' 라고 답하며 폰을 끈다. 1회차 당일 아침. 강의실에 들어가 주위를 둘러본다. '2012년 모두가 좋아하고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 이라고 ppt화면이 나와있다. 혜진은 자리에 앉고 화면을 쳐다본다.

며칠 뒤 학교 복도를 걸어 혜진은 가방에서 디자인 책을 꺼내 휴지통에 넣는다. 자신의 공책 위에 붙여놔던 '재능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열심히 해보자' 등 메모지도 같이 버린다. 휴지통을 넣는 혜진의 표정은 일그러져있다. 몸을 숙여 손바닥으로 얼굴을 눌러 훌쩍이다 복도를 걸어 휴지통을 지나간다.

다시 현재 사무실. 김혜진(45)은 '당시엔 공무원이란 직업이 적합하다고 하니 거기에 따라 엄마는 공무원이 됐지만 딸, 너는 이러지 말고 하고 싶었던 거 했으면 좋겠어.' '응, 그래 학교 생활 잘하고~' 라고 말하며 통화를 끝낸다. 후 숨을 내쉬며 작성하던 엑셀을 닫고, 보고 있던 디자이너 강사의 강연을 듣는다. 팔짱을 끼며 턱을 받치고 흥미롭고 재밌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본다. 살짝 싱긋 웃고 있다.

시나리오

s1. 사무실 / 낮

김혜진(45) 가 마우스를 클릭하며, 엑셀표를 정리하고 있다.

전화기가 울린다.

김혜진: (전화를 받으며) 어, 딸 왜?

딸(음성): 학교에서 꿈 같은 거 줬는적으라고 종이 나눠데, 그냥 친구 따라 간호사나 적을까봐.

전화를 받으며 하던 일을 멈추고 딸의 이야기를 듣다가 키보드 아래 자기 할 일을 적어놓은 종이에 볼펜으로 낙서를 한다.

김혜진: (낙서를 하며) 그래? 그게 하고 싶으면 하면되는데 정말 그 꿈이 하고 싶어?

딸(음성): 아니, 하고 싶은 게 없어..

김혜진: (볼펜으로 끄적이며)친구 따라가기보단, 나는 너가 꿈에 대해 더 찾아보고 적었으면 좋겠어.

딸(음성): 응..

김혜진: 네가 하고 싶은 거라면 엄마는 무엇이든 응원하고 지지할거야.

딸(음성): 왜? 엄마는 어릴 적에 여기 뭐라고 적었어?

김혜진: 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적지 못했어(몸을 뒤로 기울이며) 확신이 없었거든.

김혜진이 낙서한 로고가 보인다. 이 로고가 과거와 이어지며.

과거를 회상한다.

s2 독서실 자습실 /저녁 과거

김혜진(18)이 자습실에 앉아 노트북으로 공모전 포스터를 열어놓고 공책에 연필로 끄적이며, 로고를 그리고 있다.

한참 만들다 혜진은 힘들었다는 듯 기지개를 편다 그때 엄마에게서 문자가 온다. '딸~시험이 아무리 끝났어도 공무원 문제집 매일 풀어야 해 알지?' 화면을 보던 혜진은 인상을 찌푸리며 . '알아서 할게요.'라고 답하고 폰을 뒤집으며 내려놓는다

기분이 상했는지 노트북을 탁 덮으며 한숨을 쉬며, 몸을 숙이며 바닥에 있던 가방에서 공무원 문제집과 같이 쓰는 공책을 꺼낸다. 그러다 종이를 떨어뜨리고 혜진이 주우며 종이를 쳐다본다. 거기엔 학교에서 나눠준 나 스스로 적은 '다가오는 고3, 나의 꿈은 디자이너 입니다.' 종이가 보인다. 그 종이 아래에 '부모님이 원하는 나의 꿈은 공무원' 이라고 적혀있는게 보인다.

한참 보다가 가방에 넣고 하기 싫다는 듯 공무원 문제집을 책상 위에 올려둔 채 팔을 머리에 대고 옆드린다.

s3 학교 복도 창틀/ 아침 과거

혜진이 왼쪽 모서리 창틀에 기대 서서 휴대폰을 한다.

여러 상장을 들고 있던 반장이 다가와 상장을 건넨다.

교내 디자인공모전 동상을 탔다는 소식이다.

반장이 엄지 척을 해주자 혜진은 싱긋 웃으며 고맙다고 한다 반장과 혜진이 인사를 하고 반장이 지나간다. 혜진 상장을 보며 아쉽다는 듯 가만히 본다.

그때 문자가 온다.

'b브랜드 로고 공모전 예선 결과' 라는데 '지원자 김혜진님,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안타깝게 공모전에 떨어지셨습니다.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온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문자가 또 왔는데 'c브랜드 공모전 최종 결과' 라면서 문자가 왔는데 김혜진이 떨어졌다는 내용이다. 휴대폰을 보며 인상을 구기고 한숨을 내쉬며 창 밖을 쳐다본다.

s4 학교 도서관 / 낮 과거

디자인계열 관련 서적들이 꽂힌 책꽂이를 지나치는데 흥미로운 표지에 책 한 권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서서 읽는다. 재밌었는지 몇 권을 더 꺼내 의자에 앉아 읽는다

그러다 친구1이 다가와 공무원 관련 문제집을 잠깐 내려놓고 김혜진(18)에게 종이를 내민다. '2012년 인기많은 베스트 1위 직업 공무원' 이라는 제목이 적힌 스크랩한 기사를 보여준다.

기사 아래 쪽지에는 '너도 나처럼 공무원 준비한다는 말이 있던데 정보 공유함.' 라고 적혀있다. 친구1이 손가락으로 기사를 가리키더니 힘내라고 손을 불끈 친다. 혜진은 그 모습에 살짝 미소를 띤다. 친구1이 손인사를 하며 자리를 뜨고 혜진은 기사를 한참 쳐다본다

s5 독서실 자습실 / 저녁 과거

김혜진(18)이 의자에 앉아 공책 위로 공모전 내역을 끄적인다. 그러다 고민을 하는 혜진은 '디자이너' 에 대한 불안감에 생각에 잠긴다. 옆에 있던 휴대폰을 보다가 블로그 글을 눈에 띄는 게시물을 보게된다. 그 게시물을 보는데 '현대에 불안정한 직업은 갖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이 보인다

게시물을 읽다가 포스트잇에 메모하고 폰을 내려놓는다. '불안정한 직업 1위 디자이너..2위ooo' 이라고 차츰 적는데 메모지를 다 적고 써놓은 글을 보는 혜진의 표정은 불편하고 불안하다.

이어 공무원에 대해 검색을 해 찾아보는데 '요즘 시대가 공무원을 추천하는 이유' 등 여러 기사와 영상이 뜨고 혜진은 몇 개 눌러 영상을 본다. 혜진은 영상을 보다 끄고 턱을 관 채 고민한다.

s6 카페 / 낮 과거

김혜진(18)이 책상에 앉아 디자인 책을 읽다가 책을 덮고 책 표지만 쳐다본다. 그 순간 문자가 온다. 유명한 공무원 학원 강사가 와서 특강을 해주신대 딸~ 이라며 센터 프로그램 진행 표를 보내준다.

그런데 1회차가 대학입시 강사, 2회차가 디자이너 ooo이라고 적혀 있다 고민하다가 메모지에 1회차 강의 시작 날짜를 적는다.

메모지를 한참 적는데 엄마에게서 문자가 더 온다. '딸, 엄마 아빠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가난한 디자이너 보다 돈 많이 벌고 편한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문자가 온다

그 문자에 김혜진(18)는 '네 생각해볼게요.' 라고 답하며 폰을 끈다. 가방을 정리하고 카페를 나간다. 나가며 문을 민다. S7과 이어진다.

s7 강의실 / 다음날 아침 과거

아침. 문을 밀며 강의실 안으로 들어간다 문 앞에 붙어있는 강의 포스터가 보인다.
혜진(18)이 주위를 둘러본다.

‘2010년 모두가 좋아하고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 이라고 ppt화면이 나와있다. 혜진은 자리에 앉고 화면을 쳐다본다.

s8 학교 복도/ 낮 과거

복도를 걸으며 혜진은 가방에서 디자인 책을 꺼내 휴지통에 넣는다. 자신의 공책 위에 붙여놨던 ‘재능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열심히 해보자’ 등 메모지도 같이 버린다.

휴지통을 넣는 혜진의 표정은 일그러져있다. 몸을 숙여 손바닥으로 얼굴을 눌러 흘쩍이다
복도를 걸어 휴지통을 지나간다.

s9 사무실 / 낮

김혜진(45): (통화하며) 당시엔 재능도 없는 것 같고 공무원이란 직업이 적합하다고 하니 거기에 따라 엄마는 공무원이 됐지만 딸, 너는 이러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

딸(음성): 응 알겠어 더 찾아볼게.

김혜진(45): 응, 그래 학교 생활 잘하고. (통화를 끝내며 후 숨을 내쉰다.)

혜진은 작성하던 엑셀을 닫는다.

김혜진(45): 디자인이라..

혜진은 의자를 뒤로 하며 팔짱을 끼며 생각에 잠기다가 유튜브에 들어가 디자이너의 강의를 하나 클릭 해 본다. 재밌다는 듯 웃고 있다.

가사.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캄캄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시절을 난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엄마는 아빠는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멀어만 가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내게 정말 맞더라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지더라고
근데 가끔은 너무 행복하면 또 아파올까 봐

내가 가진 이 행복들을 누군가가 가져갈까 봐
아름다운 아름답던 그 기억이 난 아파서
아픈 만큼 아파해도 사라지지 않을까
친구들은 사람들은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모습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멀어만 가
그래도 난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 밝은 빛이라도 될까 봐
어쩌면 그 모든 아픔을 내뱉고서라도
짧게 빛을 내볼까 봐
포기할 수가 없어
하루도 맘 편히 잠들 수가 없던 내가
이렇게라도 일어서 보려고 하면
내가 날 찾아줄까 봐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얼마나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바랬을까